

# 1960년대 한·일 대중음악에 나타나는 비틀즈의 영향을 통한, 대중음악의 수용의미 분석

- 1960년대 양국 밴드 음악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 주 원\*

1. 서론
2. 본론
  - 2.1. 1960년대 비틀즈가 한·일 대중음악에 미친 영향
  - 2.2. 한·일 밴드 음악에 드러나는 비틀즈의 음악적 영향
    - 2.2.1 한국 밴드 음악에 드러나는 비틀즈의 음악적 영향
    - 2.2.2 일본 밴드 음악에 드러나는 비틀즈의 음악적 영향
  - 2.3. 한·일 밴드 음악 양상의 차이가 가지는 의미
3. 결론

---

1964년 2월 7일 미국 뉴욕에 도착한 비틀즈의 모습이 중계된 이래로 비틀즈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대중음악 시장을 흔들어 놓았다. 당시 미국의 대중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또한 비틀즈를

---

\* 정화예술대학교 조교수

비롯한 영국스타일 밴드음악의 영향을 받았다. 본 논문은 1960년대에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경험한 이러한 문화적 현상을 토대로 당대 양국 음악의 비교를 통해 한·일 양국의 영미권 문화 전파 양상을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 비틀즈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1960년대 양국의 초창기 밴드들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밴드들의 음악을 선율, 화성의 분석을 통해 양국 밴드음악의 음악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양국의 밴드음악은 음악양상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공통점은 양국의 밴드음악이 비틀즈의 밴드 편성과 편곡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하였다. 한국 밴드들의 경우 변안곡을 제외하고 보면 비틀즈의 음악적 영향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반면 일본의 경우 비틀즈의 선율, 화성적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능한 비틀즈와 흡사한 음악을 구사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의 1960년대 밴드음악은 새로운 영미권 음악을 현지화하여 타협적으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고, 일본의 밴드음악 역시 현지화시도가 있었으나 비틀즈로 대변되는 영미권 음악의 추세를 그대로 모사하고자 했던 시도도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70년대와 80년대의 한국과 일본의 대중음악은 제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차이는 록, 록큰롤, R&B 등 영미권 대중음악장르의 분화기로 여겨지는 50, 60, 70년대의 영미권 음악을 양국이 각자 다르게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수용의 차이가 후대 음악에 영향을 주는 현상은 케이팝의 탄생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현대의 케이팝의 형성, 케이팝과의 양상 차이 등에 대한 연구를 차후 연구과제로 삼겠다.

---

핵심어: 한국 대중음악, 일본 대중음악, 비틀즈, 한일 문화비교, 문화전파.

## 1. 서론

1964년 2월 7일 미국 뉴욕에 도착한 비틀즈의 모습이 증계된 이래로 비틀즈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대중음악 시장을 흔들어 놓았다.<sup>1)</sup> 당시 미국의 대중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또한 비틀즈로부터 전세계에 전파되고 있던 영국스타일 밴드음악의 영향을 받았다. 당대 양국의 많은 젊은 음악가들은 비틀즈와 유사한 악기편성, 음악스타일, 심지어는 헤어스타일과 의상콘셉트까지 따라 하기 시작하며 ‘그룹사운드 붐’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1960년대 한국에 비틀즈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밴드는 신중현의 애드훅(add4), 키보이스(keyboys)가 있었으며,<sup>2)</sup> 일본에는 더 스파이더스(サスパイダース), 더 다이나마이트(ダイナマイツ), 재키 요시카와와 블루 코메츠(ジャッキー吉川とブルー・コメツ) 등이 있었다.<sup>3)</sup> 본 논문은 1960년대에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경험한 이러한 문화적 현상을 토대로 당대 양국 음악의 비교를 통해 한일 양국의 영미권 문화 전파 양상을 대중음악의 영역에서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1964년 비틀즈의 미국 진출 직후 1964년, 1965년 무렵부터 한국과 일본에서는 비틀즈 스타일의 음악을 하는 밴드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sup>4)</sup> 1964년을 기점으로 나온 한국의 밴드들과 일본의 일부 밴드들은 외적인 이미지나 악기 편성의 측면에서 비틀즈를 필두로 하는 당시 영국밴드들을 상당부분 참조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많다.<sup>5)</sup> 하지만 음악적인 부분에

---

1) Ronda Markowitz. 2006. 「Rock History folk, pop, mods, and rockers, 1960-1966」 Greenwood press : 86-88

2) 윤수경. <신중현 록밴드의 시작은 미8군...부대 근처 ‘가수촌’도>, 조선일보, 2023년 10월 18일.

3) 佐々木敦. 2014. 「ニッポンの音楽」, 講談社現代新書 : 27-29

4) 박찬호. 2011. 「한국가요사2」, 미지북스 : 534-536

5) 박호정. 2018. 「1970년대 한국 록음악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 대학교 : 10-11

서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초기 비틀즈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1960년대 양국의 초창기 밴드들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음악의 요소 중 선율, 화성의 분석을 통해 양국 밴드음악의 음악양상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 음악 비교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가늠하고 이러한 문화차이가 가지는 의미해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은 1960년대 록밴드 포맷의 아티스트 중 음반을 취입하여 현재 기준 음악분석이 가능한 밴드가 애드훅, 키보이스 두 밴드 밖에 없다. 두 밴드는 외양적으로 초기 비틀즈의 헤어스타일과 복장을 그대로 카피하는 등 비틀즈의 영향이 뚜렷한 밴드들이다. 1970년대가 되어서야 산울림 등의 록밴드들이 등장하지만 시기적 간극이 있어 음악 스타일 분석 표본이 되기는 힘들다. 1960년대 일본의 록밴드들은 일본 고유의 록음악 확립을 시도했다고 평가되는 핫파이엔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운드를 구현하려 했던 더 몹스, 사이키델릭 록을 시도한 게도 등 다양한 밴드들이 있었으나<sup>6)</sup> 더 스파이스, 더 다이 나미즈, 재키 요시카와와 블루 코메츠 3밴드의 경우 같은 의상을 맞춰 입고 비틀즈의 헤어스타일을 연출했던 밴드들이며 한국의 두 록밴드들과 대척점에 두고 비교할 수 있는 밴드들이다.

1960년대 한국과 일본의 대중음악을 비교하는 비교연구는 진행된 사례가 없다. 나라별 구체적인 시기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960년대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중음악이 동아시아 대중음악에 가시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던 시기이고 미국의 대중음악 또한 빠른 변화를 겪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대중음악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각국 대중음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미 정리된 음악적 특질연구들에 더해 보강연구를 진행해 양국 대중음악의 비교, 분석하여 그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6) 佐々木敦. 2014. 「ニッポンの音楽」, 講談社現代新書 : 14-16

## 2. 본론

### 2.1. 1960년대 비틀즈가 한·일 대중음악에 미친 영향

1950년대 록큰롤 붐에 이어 1960년대 초반 미국은 서프 음악<sup>7)</sup>의 영향으로 밴드포맷의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증가하고 있었다.<sup>8)</sup> 결정적으로 1964년 비틀즈의 성공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였다. 1964년 비틀즈의 미국팝음악시장 진출은 시작부터 매우 성공적이었다. 미국에서 가진 비틀즈의 첫 공개 활동이었던 애드 설리번쇼 출연은 7천 3백만 명이 시청했을 것으로 추산되며, 4월 첫째 주에는 빌보드 싱글차트의 1위부터 5위까지의 모든 곡이 비틀즈의 곡들로 가득 찼다.<sup>9)</sup> 비틀즈를 필두로 많은 영국 출신 밴드들이 미국 음악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 시기 미국 음악 시장에 진출한 영국 밴드들은 음악적으로 각자 고유한 개성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미국의 블루스, 록큰롤, 서프 음악의 영향이 뒤섞여 형성된 음악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비틀즈 또한 이러한 1960년대의 새로운 대중음악 문법을 잘 따랐고 개척 발전시킨 대표적인 밴드로 볼 수 있다. 그 음악적 특징은 첫째, 블루스 스케일로 대표되는 록큰롤/블루스 장르의 선법을 사용하는 선율전개, 둘째, 단순하면서도 반복되는 4비트 위주의 리듬전개, 셋째,

---

7) 서프 음악 : 1950년대 록큰롤의 유행이 주춤하던 1960년대 전반기 더 벤처스(The Ventures), 듀안 에디(Duane Eddy), 더 비치 보이즈(The Beach boys) 등을 중심으로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음악 장르로 '캘리포니아 사운드', '서프 사운드' 등으로 불려졌다. 초기 비틀즈의 음악에 영향을 준 음악장르로도 알려져 있다. Ronda Markowitz. 2006. 『Rock History folk, pop, mods, and rockers, 1960-1966』 Greenwood press : 146-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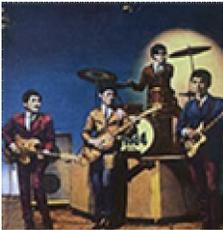
8) Ronda Markowitz. 2006. 『Rock History folk, pop, mods, and rockers, 1960-1966』 Greenwood press : 146-153

9) Ronda Markowitz. 2006. 『Rock History folk, pop, mods, and rockers, 1960-1966』 Greenwood press : 87-88

중창을 적극 활용하여 중심 멜로디에 화음을 쌓아 보조하는 형태의 화성전개이다.<sup>10)</sup> 외양적으로도 비틀즈는 같은 정장을 맞춰 입고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여 팀으로서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미국 팝음악시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한국과 일본의 대중음악계도 이해 반응하였다. 특히 1960년대 양국에는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주둔미군을 위한 위문공연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환경이 미국팝음악이 한·일 양국에 유입되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sup>11)</sup> 이 시기 활동을 시작한 한국의 록밴드들은 모두 미8군 소무대에서 활동하던 팀들이었다. 1세대 한국의 록밴드들은 코끼리 브라더스, 애드훅, 키보이스가 있었다. 그들은 양복을 맞춰 입고 비틀즈와 유사한 장발 헤어스타일을 하여 외양적으로 비틀즈와 비슷한 느낌을 주었다. 애드훅은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가 사용하는 모델과 같은 호프너 베이스를 연주하였으며 키보이스는 첫 앨범에서 비틀즈의 노래를 리메이크하여 ‘한국의 비틀즈’라는 별명을 얻었다.<sup>12)</sup>

〈그림-1〉 애드훅



〈그림-2〉 키보이스



〈그림-3〉 비틀즈



이후 한국의 록밴드들은 1970년대가 지나가서야 추가 등장하기 시작

10) 최찬호. 2002. 「The Beatles의 시기별 작품분석 - 〈I want to hold your hand〉, 〈Girl〉, 〈Something〉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대학원 : 12-18

11) 青木深. 2013. 「めぐりあうものたちの群像」, 大月書店 : 526-529

12) 이영미. 2006. 「한국대중가요사」, 민속원 : 264-265

한다. 일본도 비틀즈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상황은 비슷하였다. 비틀즈가 1966년 직접 일본 투어를 기획할 정도의 비틀즈 붐이 있었으며,<sup>13)</sup> 양복을 똑같이 맞춰 입고 장발을 한 밴드들이 등장하였다. 1965년 더 스파이더스가 <후리후리>로 데뷔하였으며, 1966년 재키 요시카와와 블루 코메츠, 1967년 더 다이나마이즈 등의 밴드들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를 일본 대중음악계에서는 그룹사운드 붐이라고 일컫고 있다.<sup>14)</sup> 일본의 경우 핫파이엔도, 더몹스 등 다양한 록음악을 구사하는 밴드들이 많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초기 록밴드들과 대척점이 될 수 있는 재키 요시카와와 블루 코메츠, 더 다이나마이즈, 더 스파이더스 3밴드를 비교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밴드들은 모두 비틀즈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림-4> 더 스파이더스



<그림-5> 재키 요시카와와 블루 코메츠



13) Justin Beckner. <The story behind the Beatles' ill-fated trip to asia in 1966>, Ultimate guitar. 2023년 1월 23일

14) 佐々木敦. 2014. 「ニッポンの音楽」, 講談社現代新書 : 30-38

## 2.2. 한·일 밴드 음악에 드러나는 비틀즈의 음악적 영향

### 2.2.1. 한국 밴드 음악에 드러나는 비틀즈의 음악적 영향

비틀즈의 미국진출이 이루어진 1964년, 같은 해 하반기 애드훅의 첫 앨범이 발표되었다. 비틀즈와 같은 4인조 밴드 포맷으로 드럼 리듬과 악기편성에서 비틀즈와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하지만 애드훅의 노래들의 화성, 선율 상에서 드러나는 비틀즈 음악과의 상관관계는 약하다. 유럽음악의 음악적 베이스에 미국의 블루스 음악과 서프 음악의 영향을 받은 비틀즈의 음악은 선율적으로도 기본적인 서양의 장음계, 단음계와 블루스의 블루스 스케일을 사용하여 음악을 전개시켰던 반면,<sup>15)</sup> 애드훅의 음악은 5음계를 위주로 선율을 진행시켜 진행에 따라 한국의 민요적인 색채가 짙은 노래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애드훅의 1964년 노래 〈빛속의 여인〉은 단조곡으로 5음계를 사용하여 선율을 전개한다.

#### 〈악보-1〉 애드훅 〈빛속의 여인〉 verse1

Em Am D G  
잇 지 못할 - 빛속의 여인 - 지 금 - 은 -

같은 앨범에 수록된 〈우체통〉 또한 장5음계를 사용한다. 장조 5음계의 사용으로 〈우체통〉의 선율은 강하게 한국 민요의 느낌을 준다. 이는 서양의 메이저 펜타토닉의 구성음 ‘도, 레, 미, 솔, 라’가 한국의 민요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중국 궁조(宮調)의 구성음과 같기 때문이다.<sup>16)</sup>

15) 최찬호. 2002. 『The Beatles의 시기별 작품분석-〈I want to hold your hand〉, 〈Girl〉, 〈Something〉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대학원. 3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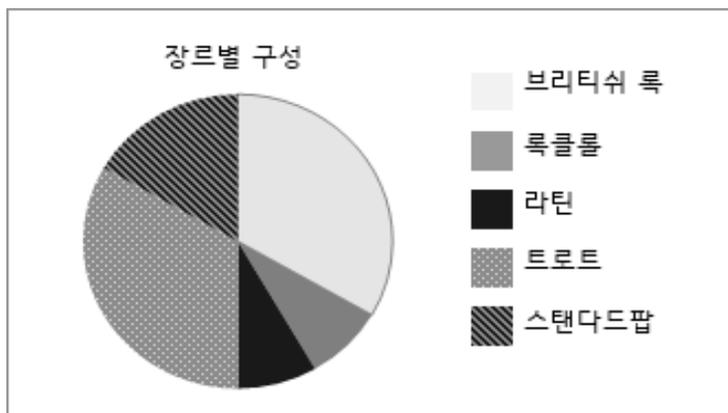
16) 김수현. 2012. 『「樂學軌範」권1에 나타난 중국 음악이론의 주제적 수용 양상에 대한 고찰

〈악보-2〉 애드훙 〈우체통〉 vers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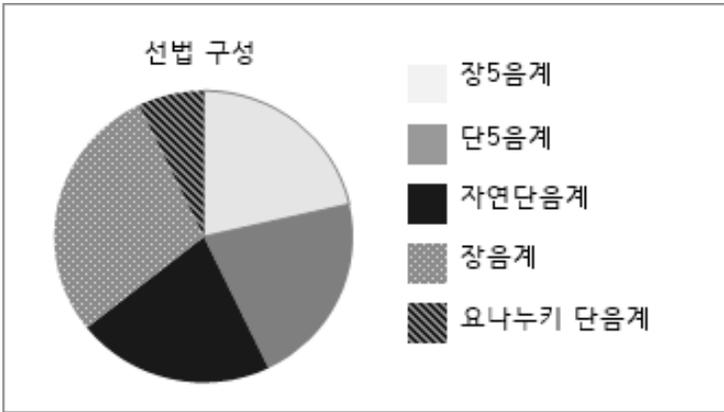
애드훙의 1964년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의 음악장르적 특징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비틀즈의 외형적인 면을 차용하고 있으나 라틴, 트로트, 스탠다드팝 등 다양한 장르적 특성의 곡들이 있다. 그리고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애드훙이 노래들에서 사용한 선법은 5음계가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애드훙의 노래가 브리티쉬록의 편곡을 취하고 있으나 민요 또는 트로트적인 노래로 들리게 한다.

〈표-1〉 애드훙의 장르별 구성



-‘時用’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no.47, 한국유교학회 : 5-10

〈표-2〉 애드립의 선법 구성



키보이스 또한 ‘한국의 비틀즈’라는 별명을 가지고 1964년 데뷔하였지만 첫앨범은 비틀즈의 대표곡들을 리메이크한 노래들이 포함된 리메이크 앨범이었다. 1969년이 되어서 자작곡이 수록된 첫 앨범이 발표되는데 69년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한국 트로트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일본음계인 요나누키(ヨナ抜き) 음계<sup>17)</sup>가 주로 사용되었다. 1969년 발표된 키보이스의 노래, 아래 악보의 〈정든배〉도 요나누키 단음계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60년대 록밴드들은 비틀즈의 이미지를 차용하였음에도 음악적으로는 당시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음악이었던 트로트와 민요적인 음악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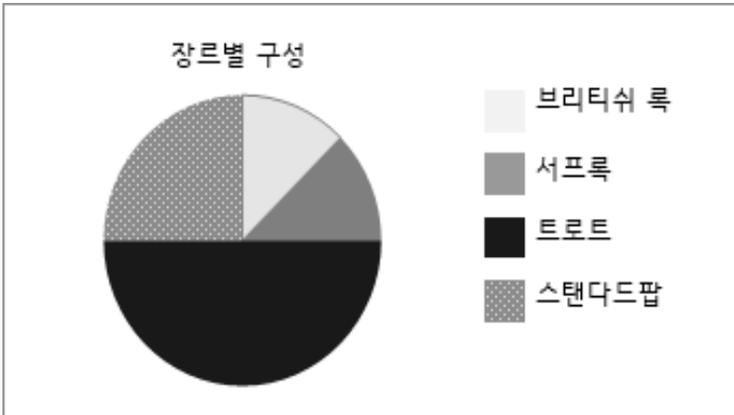
〈악보-3〉 키보이스 〈정든 배〉 verse1



17) 岸邊茂雄 외 공저. 이지선 역주. 2003. 「일본음악의 역사와 이론」, 민속원 : 167

키보이스의 69년 앨범의 장르별 곡구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장르적으로 대부분 트로트적인 음악스타일을 보이고 있어 번안곡으로만 앨범을 냈던 첫 번째 앨범과 음악적 결이 다르다. 상당수의 수록곡들이 트로트의 주 선법으로 사용되는 요나누키 단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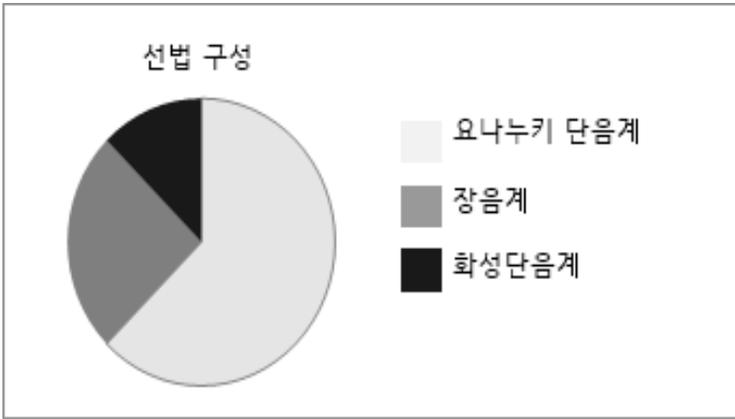
<표-3> 키보이스의 장르별 구성



게다가 장르적으로 브리티시쉬록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노래인 <해변으로 가요>가 일본 노래 <해변의 여인>을 표절한 것으로 2007년 최종 판결난 노래라서<sup>18)</sup> 이 노래를 제외하면 첫 번째 앨범에서 가지고 있었던 비틀즈적 음악적 색채는 자작곡에서 전혀 녹여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음악적 특징은 다음 <표 4> 선법 구성 그래프를 통해 재차 확인이 가능하다.

18) 권경훈. <70년대 가요 '해변으로 가요' '일본노래 표절이다' 결론>, 조선일보, 2007년 2월 28일.

〈표-4〉 키보이스의 선법 구성



### 2.2.2 일본 밴드 음악에 드러나는 비틀즈의 음악적 영향

더 스파이더스의 1965년 데뷔곡 〈후리후리〉는 화성진행을 통해 노래를 진행시키지 않고 기타리프<sup>19)</sup>를 통해 음악을 전개시켰다. 이런 특징은 비틀즈, 롤링스톤즈 등 1세대 영국 출신 록밴드의 음악에 흔히 등장하는 음악 전개방식으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동시대 한국밴드들의 창작곡들 중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곡 전개방식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신중현 등에 의해 시도된다. 〈후리후리〉에 사용된 선율도 블루스 스케일을 사용하고 있어 영국밴드들의 음악적 특징에 보다 가까운 음악을 구사하였다.

19) 리프(riff) : 여러 번 되풀이되는 단순한 프레이즈 또는 테마, 록음악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음. 김기호 편저. 1995 「파퓰러 음악사전」, 아름출판사 : 113

〈악보-4〉 The Spiders 〈フリフリ〉 vers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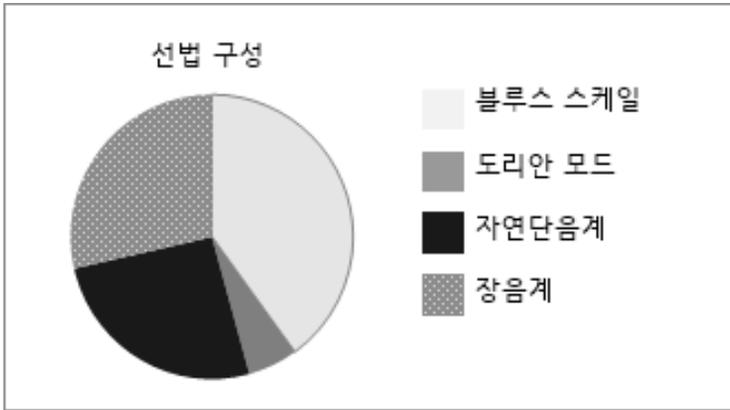


더 스파이더스가 1960년대 동안 발표한 노래들을 대상으로 장르별 구분을 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1964년부터 1969년에 이르기까지 비틀즈 또한 초기 서프 음악과 록큰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음악에서 사이키델릭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더 스파이더스도 비틀즈와 유사한 브리티쉬록뿐 아니라 비틀즈가 영향을 받았던 서프 음악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는 스타일의 노래부터 사이키델릭까지 다양한 장르를 구사하였다. 그리고 엔카적인 스타일의 노래들도 확인할 수 있다.

〈표-5〉 더 스파이더스의 장르별 구성



〈표-6〉 더 스파이더스의 선법 구성



〈표 6〉에서 확인 가능한 더 스파이더스의 선법 구성도 한국 밴드음악이 보여준 그것과는 차이가 확연하다. 블루스 스케일을 주로 활용하여 음악을 만들었으며, 도리안 모드 스케일 등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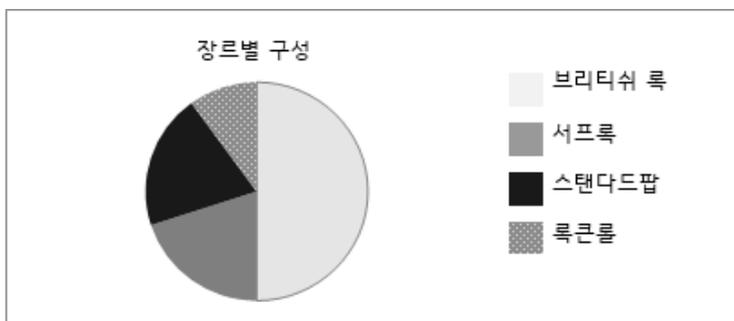
더 다이내마이츠의 1967년 작 〈터널천국〉도 블루스스케일을 선율에 활용하고 있으며 장조에서 b7음을 활용하여 더욱 블루스적인 느낌을 주었다. 특히 〈터널천국〉의 도입부 보컬의 중창부분은 비틀즈의 1964년 작 〈twist & shout〉을 연상시킨다.

〈악보-5〉 The Dynamites 〈トンネル天国〉 vers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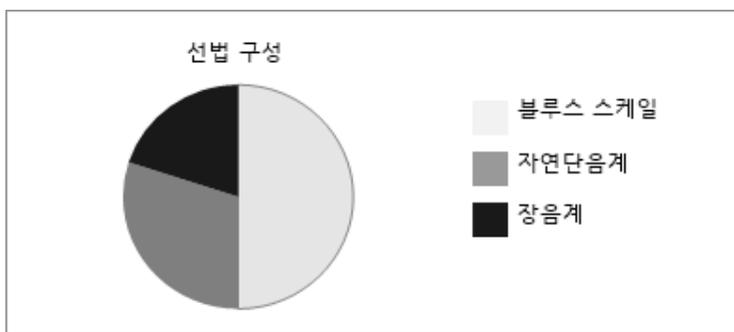
F  
 トンネルぬけて - トンネルぬけて -  
 F Cm F Cm  
 トンネルぬけて - オンボロ列車で - いなか

더 다이나마이츠의 1960년대 노래들의 장르별 구성은 아래 <표 7>과 같다. 더 스파이더스가 비틀즈적인 록음악을 구사한다면 더 다이나마이츠는 롤링스톤즈의 영향이 느껴지는 노래들이 더 많다. 엔카 장르의 노래도 전혀 하지 않았다.

<표-7> 더 다이나마이츠의 장르별 구성



<표-8> 더 다이나마이츠의 선법 구성



위 <표 8>은 더 다이나마이츠의 선법 구성을 나타낸 표이다. 더 다이나마이츠 역시 블루스 스케일 위주로 노래를 작곡하였다.

재키 요시카와와 블루 코메츠는 1965년 데뷔한 밴드로 1968년 미국의

에드 설리번 쇼도 출현하는 등 일본 내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지녔던 밴드이다. 이 밴드 또한 많은 노래들에서 서프 음악과 비틀즈 스타일의 영국록을 음악적으로 추구했지만 데뷔 앨범에 수록된 〈블루 샬로〉(악보 6)와 같이 요나누키 음계를 사용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60년대 일본 밴드들은 외향적으로는 당시 새롭게 유행하던 비틀즈를 참조하면서 음악적으로도 영향을 크게 받은 경우와 기존 일본 대중음악의 문법을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공존하였다.

〈악보-6〉 ジャッキー吉川とBlue Comets 〈Blue Chateau〉 verse1

me she's wait ing there she knows i'll be free still every  
hour our lovely rose blue blue blue chateau

### 2.3. 한·일 밴드 음악 양상의 차이가 가지는 의미

지금까지 1960년대 비틀즈의 영향권 아래 등장했던 한국과 일본의 록밴드 음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로 악기 편성을 비롯해 비틀즈 스타일의 영향이 있지만 화성/선율적인 유사성은 없는 음악을 한 밴드들이 있었다. 둘째는 화성/선율적 부분에서 비틀즈의 음악과 유사성이 확인되어 음악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밴드들이 있었다. 비틀즈와의 음악유사성의 구분 기준은 다음으로 판단될 수 있다.

1. 블루스 스케일, 도미넌트 코드톤(b7) 등 비틀즈가 영향을 받은 블루스 장르적 선율진행.
2. 기타리프를 통한 음악진행과 같은 기존 아시아권 대중음악에서 볼 수 없는 비틀즈를 비롯한 신진 영국밴드들의 음악문법 사용.

이런 판단 기준으로 앞서 분석한 밴드들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9〉 1960년대 한·일 밴드들의 음악적 성향

기존 한·일 대중음악의 특징을 고수	비틀즈로 대표되는 영국 록밴드들의 영향으로 음악적 변화 시도
애드훅, 키보이스, 재키 요시카와와 블루 코메츠	더 스파이더스, 더 다이나마이츠

위 결과를 통해 1960년대 한국의 록밴드들은 록밴드라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개념의 악기편성을 활용하여 기존 자국의 대중음악 풍의 노래들을 연주했다고 볼 수 있고, 일본의 록밴드들의 경우 한국 록밴드의 방식과 같은 방식을 보이는 밴드도 있었지만 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최대한 음악적으로 흡사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록의 태동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분석이 가능한 록밴드들이 많다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유사한 포맷의 음악을 연주했던 일본의 밴드들과의 비교에서 그 차이는 확연했다. 초기 록밴드들의 이러한 음악적 특성 차이를 통해 양국의 문화차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영미권 음악을 현지화하여 타협적 수용 또는 능동적 현지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밴드음악 역시 현지화시도가 있었으나 새로운 영미권 음악을 음악적으로도 모사하려는 시도 또한 있었다.

이는 대중음악 수용자적 측면에서 보면 양국이 영미권 음악에 대한 대중 노출도가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 일 수 있다. 실제로 영미권 음악의 주요 유입 경로가 되었던 미군부대의 경우도 한국에 비해 일본이 보다 규모가 컸다는 점 등에서 충분히 대중에게 노출되는 영미권 문화의 양이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20)</sup> 다음으로 공급자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당시 양국의

20) 青木深. 2013. 「めぐりあうものたちの群像」, 大月書店 : 18-19

음악인들의 영미권 음악에 대한 접근방식이 차이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음악인들 역시 공급자인 동시에 수용자가 될 수 있다. 미8군 쇼무대 출신이었던 한국의 초기 록밴드들은 상대적으로 당시 대중들에 비해 영미권 음악에 대한 접근성은 좋았을 수 있지만 당시 영미권 음악의 수요는 제한적이었고 이러한 당시 상황이 음악인들로 하여금 영미권 음악을 그대로 구현하기보다 대중들의 취향을 고려한 현지화 노력을 유도하였다 판단된다. 이러한 1960년대 양국의 록음악 수용 방식의 차이는 이후 1970년대, 1980년대의 양국 대중음악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며 차이를 만들어 갔다. 1970년대에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심화되었으며<sup>21)</sup> 1980년대에도 양국 밴드음악에서의 차이는 지속되었다.<sup>22)</sup> 이러한 차이는 이후 한국과 일본의 주류음악장르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 3.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초기 비틀즈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1세대 밴드들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양국 밴드음악의 음악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양국의 밴드음악은 음악양상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공통점은 양국의 밴드음악이 비틀즈의 밴드 편성과 편곡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양국의 밴드 음악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 밴드들의 경우 변안곡을 제외하고 보면 비틀즈의 음악적 영향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애드립은 민요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5음계를 활용하여 노래를 만들어 비틀즈의

---

21) 이주원. 2020. 「1970년대 전반기 한·일 대중음악의 록 음악 수용양상과 그 의미에 관한 고찰」, 『글로벌문화콘텐츠』제45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 86-87

22) 홍성규, 이주원, 서재혁. 2018. 「1980년대 초기 한·일 헤비메탈음악의 발전 양상과 그 의미에 관한 고찰 - 대표적인 밴드들의 작품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제55호,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 116-117

음악과는 차이가 있고 키보이스는 60년대 후반에 트로트적인 곡들을 주로 발표했다. 반면 일본의 더 스파이더즈와 더 다이내마이츠의 경우는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 없었다. 두 밴드는 비틀즈의 선율, 화성적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능한 비틀즈와 흡사한 음악을 구사하고 있다. 물론 재키 요시카와와 블루 코메츠와 같이 엔카적 선율의 노래를 했던 밴드도 역시 존재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의 1960년대 밴드음악은 새로운 영미권 음악을 현지화하여 수용했다고 볼 수 있고, 일본의 밴드음악 역시 현지화시도가 있었으나 영미권 음악의 추세를 그대로 모사하고자 했던 시도도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국의 문화수용 차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당대 양국의 문화전파 양상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영미권 문화에 대한 대중의 노출도가 양국이 서로 달랐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양국의 음악인들이 새로 형성되고 있던 영미권 음악에 대해 서로 접근 방식이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70년대와 80년대의 한국과 일본의 대중음악은 제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차이는 록, 록큰롤, R&B 등 영미권 대중음악 장르의 분화기로 여겨지는 50, 60, 70년대의 영미권 음악을 양국이 각자 다르게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수용이 후대 음악에 영향을 주는 현상은 케이팝의 탄생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현대의 케이팝의 형성, 케이팝과의 양상 차이 등에 대한 연구를 차후 연구과제로 삼겠다.

한국대중음악학회 소속 및 직위 표기

	대상	
대학	대학 소속	
소속	교수(전임)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기호 편저. 「파플러 음악사전」. 아름출판사. 1995.
- 박찬호. 「한국가요사2」. 미지북스. 2011.
-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민속원. 2006.
- 岸邊茂雄 외 공저. 이지선 역주. 「일본음악의 역사와 이론」. 민속원. 2003.
- 青木深. 「めぐりあうものたちの群像」. 大月書店. 2013.
- 佐々木敦. 「ニッポンの音楽」. 講談社現代新書. 2014.
- Ronda Markowitz. *Rock History folk, pop, mods, and rockers, 1960-1966*, Greenwood press. 2006.

### 2. 학술지 논문

- 김수현. 「『樂學軌範』권1에 나타난 중국 음악이론의 주체적 수용 양상에 대한 고찰 - ‘時用’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no.47. 한국유교학회. 2012.
- 이주원. 「1970년대 전반기 한·일 대중음악의 록 음악 수용양상과 그 의미에 관한 고찰」. 『글로벌문화콘텐츠』제45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0.
- 홍성규, 이주원, 서재혁. 「1980년대 초기 한·일 헤비메탈음악의 발전 양상과 그 의미에 관한 고찰 - 대표적인 밴드들의 작품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제55호.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8.

### 3. 학위 논문

- 박호정. 「1970년대 한국 록음악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 대학원. 2018.
- 최찬호. 「The Beatles의 시기별 작품분석-(I want to hold your hand), 〈Girl〉, 〈Something〉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대학원. 2002.

### 4. 신문 기사

- 권경훈. 〈70년대 가요 ‘해변으로 가요’ ‘일본노래 표절이다’ 결론〉, 조선일보, 2007년 2월 28일.

윤수정. 〈신중현 록밴드의 시작은 미8군…부대 근처 ‘가수촌’도〉, 조선일보, 2023년 10월 18일.

Justin Beckner. 〈The story behind the Beatles' ill-fated trip to asia in 1966〉, Ultimate guitar. 2023년 1월 23일

# Meaning of Acceptance of Popular Music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Beatles in Korean-Japanese Popular Music in the 1960s

- Focused on the 1960s Band Music of Both Countries -

Lee Juwon  
(Jeonghwa arts College)

Since the Beatles' arrival in New York on February 7th, 1964 was broadcast, they have shaken up not only the United States but also the world's popular music market. Korea and Japan, which were strongly influenced by American pop culture at the time, were also influenced by British-style band music including the Beatles. Based on this cultural phenomenon that Korea and Japan experienced simultaneously in the 1960s, this study examined the patterns of cultural spread in the Anglo-American region between the two nations via a comparison of the music of the two countries at the time.

This study compared Korean and Japanese 60s popular music in terms of melodies and harmonies that were influenced by British-style band music represented by the Beatles. As a result, the band music of both countries exhibite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musical aspects. A common factor is that the band music of both countries follows the Beatles'

band formation and arrangement method; however, differences were also observed. In the case of Korean bands, excluding their adapted songs, the musical influence of the Beatles is not easy to find. Korean band Add4's songs were made using pentatonic scales, which give the feeling of Korean folk music. The band Keyboys wrote songs in the trot genre. In the case of Japan, other examples can be found. The band The Spiders and The Dynamites used music as similar to the Beatles as possible, thereby reflecting the Beatles' melodic and harmonic characteristics as much as possible. Jackey Yoshikawa and the Blue Comets showed enka tendencies.

Based on our results, Korea's 1960s band music localized new English-American music and accepted it in a compromise manner. Japanese band music also attempted to localize, but attempted to copy the trend of English-American music represented by the Beatles. It was confirmed that attempts had also been made. Based on these differences in cultural accept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atterns of cultural transmission at the time in the Anglo-American worl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ublic's level of exposure to Anglo-American culture was different in the two countries.

2. The music production companies of the two countries had different approaches to the newly forming English-American music.

Thereafter, Korean and Japanese popular music in the 70s and 80s took different paths. This difference can be viewed as the result of the two countries' different acceptance of Anglo-American music from the 50s, 60s, and 70s, which are considered a time of differentiation in Anglo-American popular music genres such as rock, rock'n'roll, and R&B. The occurrence of the phenomenon of cultural acceptance influencing later

generations of music is believed to be repeating with the birth of K-pop. Accordingly, the formation of modern K-pop and its differences from J-pop can be considered as future research tasks.

Keywords: Korean popular music, Japanese popular music, Beatles,  
Korea-Japan cultural comparison, cultural spread

논문 투고일: 2024년 02월 16일  
논문 심사 완료일: 2024년 04월 08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4년 05월 06일